

푸른 숲속 오감으로 즐기는 특별한 추억 원주 매봉힐링센터 오토캠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꺼리면서 가족과 소소하게 즐기기에 적당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멀리 가지 않고 자연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친환경 캠핑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매봉힐링센터 오토캠핑장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창촌길 매봉산 520m 고지에 있다. 이곳은 맑은 계곡과 소나무 숲이 유명하다. 2015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친환경 캠핑장 공모전에서 우수 캠핑장으로 선정됐으며, 사설 캠핑장으로 유일하게 상을 받은 자연 친화적 캠핑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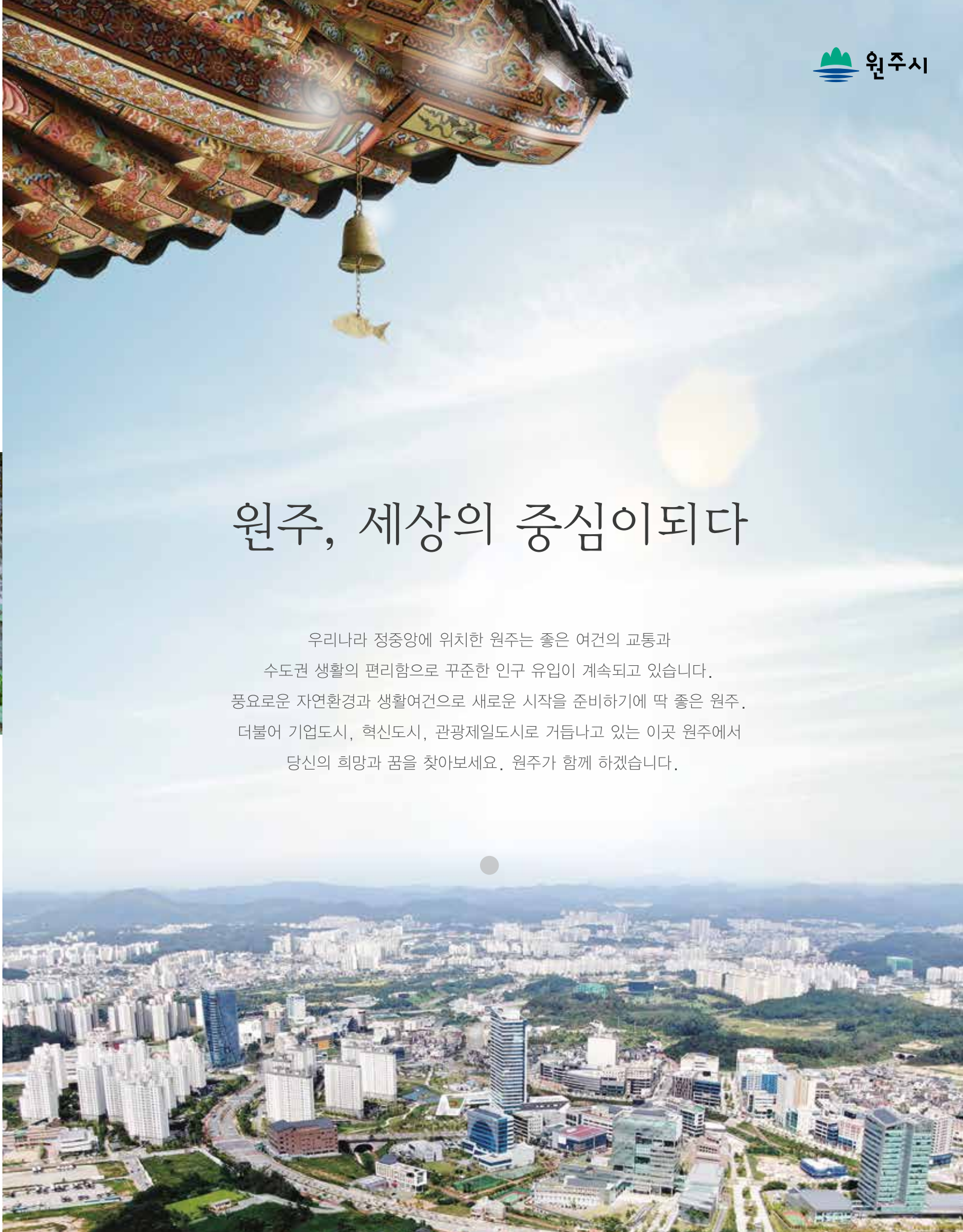
60여개의 사이트와 주차장, 식당, 키즈카페, 매점, 작은 도서관, 산책로, 잔디광장, 정원 등을 갖췄다. 직접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는 A~G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텐트 없이 편하게 숙소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안채, 사랑채, 별채, 황토방 등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음료수 등 간단한 식자재는 캠핑장 내 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음식은 미리 주문하면 된다.

놀이 공간에는 전기 기차, 수영장 등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다. 힐링 센터 도서관에서는 원주시와 연계해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0회를 진행하고 있는 '느슨한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인성, 공예, 민속문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아동, 청소년, 가족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이다.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 성인 도서, 전문 서적 등을 끌고루 갖추고 있다. 도서 기증도 가능하다.

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매봉문화광장에서 매봉장터를 운영한다.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서로 나누는 이색적인 행사라 참여자도 점점 늘고 있다. 블로그 후기 쓰고 영화 티켓 받기, VIP 특별회원권제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은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장소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은은한 솔향이 가슴 속까지 스며든다. 계곡 위쪽 선녀탕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시원하다. 잘 다듬어 놓은 산책로에서 군데군데 걸어놓은 유명 시인들의 시를 감상할 수 있고, 토끼, 다람쥐, 큰 오색딱따구리 등의 희귀한 새들과 지천으로 피어 있는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밤하늘 은하수와 풀벌레 소리는 자연의 선물이다. 숙박, 책 읽기, 문화프로그램, 장터, 놀이 등 캠핑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매봉힐링센터 오토캠핑장은 다시 찾고 싶은 캠핑의 명소다. 예약은 인터넷과 전화로 가능하다.

☎ 033-761-2282, 033-764-3373



원주, 세상의 중심이되다

우리나라 정중앙에 위치한 원주는 좋은 여건의 교통과 수도권 생활의 편리함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생활여건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원주. 더불어 기업도시, 혁신도시, 관광제일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원주에서 당신의 희망과 꿈을 찾아보세요. 원주가 함께 하겠습니다.